제6회
KWO 나지포럼

(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2024년 12월 27일(금)
14:30~18:30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제6회 KWO 나지포럼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제6회 KWO 나지포럼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일시 : 2024년 12월 27일(금) 14:30~18:30
장소 :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록	14:00~14:30	• **등록 및 명찰, 자료집 배부**
개회식	14:30~14:40	• **개회사**(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라운드 테이블 토론	14:40~15:50 (다자토론)	【좌장】 백승주(전쟁기념사업회장) 【주제】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1) 글로벌 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2) 로컬 안보: 북-미관계/대만해협 문제/한·미·일 안보 3) 한반도 안보: 남북관계/북한의 도발/김정은 체제의 내구력 【토론】 장달중(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최대석(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최윤희(前 합참의장) 남성욱(고려대학교 교수) 김원수(前 유엔사무차장) 김명섭(연세대학교 교수) 금철영(KBS 기자) 김귀근(前 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신석호(동아닷컴 전무이사,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배수강(신동아 편집장)
기념촬영	15:50~16:00	**기념촬영**
환담	16:00~18:30	**만찬**(17:00)
폐회	18:30	**폐회 선언**

〈목 차〉

개회사 ▮ 백승주

【종합토론】

장달중(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 11

최대석(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15

최윤희(前 합참의장) ····· 17

남성욱(고려대학교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21

김원수(前 유엔사무차장) ····· 25

김명섭(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27

금철영(KBS 기자) ····· 31

김귀근(前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 ····· 33

신석호(동아닷컴 전무이사) ····· 37

배수강(신동아 편집장) ····· 41

다자토론 ····· 45

개 회 사

백 승 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6회 KWO 나지포럼'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나지포럼은 특별하게 발제 없이 다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님,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님,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님,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님,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님,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님, 배수강 신동아 편집장님, 금철영 KBS 기자님, 김귀근 前 연합뉴스 한반도부장님, 신석호 동아닷컴 전무이사님 감사합니다.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이 국제정세의 불안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북-러는 더욱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한편, 14개월 이상 진행 중이었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상황 속에서 11월 5일, 미국에서는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이처럼 급변하는 현재의 국제정세를 올바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한반도 안보를 전망해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석학들의 진단과 제언들이 큰 울림이 되어 우리나라,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2024년 『KWO 나지포럼』은 본시 대규모 세미나를 분기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6회 『KWO 나지포럼』은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토론회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해 전쟁기념사업회에 부여된 호국의 전당 역할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앞장서서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쟁기념사업회 나지포럼에 참여해 주신 석학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종합토론

【토론자】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前 합참의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

금철영 (KBS 기자)

김귀근 (前 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신석호 (동아닷컴 전무이사,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배수강(신동아 편집장)

【토론문】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장 달 중(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1. 한반도 안보의 글로벌 컨텍스트(Global Context)

- 지금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위기, 갈등, 전쟁 등으로 대국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정학적 환경(geopolitical landscape)가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 북러 동맹에 의한 'global divisions' 은 더욱 심각한 지정학적 변형을 예견하고 있음
- 위의 두 전쟁은 제3의 전쟁, 즉 대만을 둘러싼 전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
- From American Hegemony to a Bipolar World. 미국 주도적 세계에서 미중 경쟁구도의 세계로: 미국과 중러의 글로벌 도전– a contest over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 미국이 주도한 rules-based global order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대안적 order로의 이행?
- 미중 경쟁이 초래할 글로벌 질서 재편은 지역적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Global geopolitical re-balancing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보임.

- Multipolar World? 아직 Middle Powers 의 영향력 제한적

- 2024년보다 더 복잡해질 2025 안보 지형:

첫째, 미국 주도의 평화가 불안정화됨.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에 의한 질서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음, 둘째,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불안정화

- 이 결과 세계질서가 기능 불능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중러북 대 서방세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게 됨
- 중국의 세계적인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증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이란의 중동패권 도전, 북러 동맹에 의한 미국 영향력에의 도전
- 서방과 중러 대립 구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임

2. 한반도 안보의 지역적 컨텍스트(Regional Context)

- Thucydides Trap: 신흥국 중국의 도전-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서태평양 지역과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의 군사력 강화
- 미국의 증가하는 complex Lattice of security ties: Quad(US, Japan, Australia, India) & AUKUS(Australia, Britain, US), 한미일 협력체제는 모두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려는 조치임.
- From Hub & Spokes to Network of Lattice: 양자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안보 전략에서 양자간 동맹뿐만 아니라 동맹국 상호간의 연계와 의무를 새로이 결집하는 격자형으로 이행
- 그 이유는? 첫째는 중국의 군사적 굴기와 미국의 영향력 저하(미국 단독으로는 중국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동맹국과 연계하여 응분의 부담과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시도), 두 번째의 이유는 미국이나 동맹국 내정의 불안정화에 따른 대비책임. 국내정치의 변화에 상관없이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고정하려는 시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더욱 분단되고 위험해지고 있음: 사소한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실수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환경임
- 한미일 협력 구도와 북중러 협력구도의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상황
- 한반도, 대만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 미중 대국 간뿐만 아니라 한미중, 한중일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이 시급해짐

3. 한반도 안보의 한반도적 상황

- 한반도 안보 환경은 남북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문제임.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와 국제화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
- 지금 한반도 안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개의 변수는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결 방식. 둘째, 북러 협력 관계, 셋째, 북한의 도발이다. 우선 트럼프의 기존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지적이다. 방위비 증액은 물론이고 비핵화 대신 핵동결을 통한 핵군축 협상이나 비핵화와 주한 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비핵화-주한미군 철수 교환론 등이다.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둘째, 북러 동맹 강화는 북한의 전략 도발 역량 강화는 물론 한반도 긴장 구도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셋째, 북한의 도발은 지금 비핵-평화를 거부하고 핵무기 고도화에 기반한 "힘을 통한 평화"의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의 핵협의그룹(NCG)발족과 핵공동지침의 문서화를 통한 한미동맹의 "핵기반 동맹 격상"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북중, 북러 동맹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 한반도에 냉전 시기를 지배했던 공포의 균형이 추구되고 있음

- 북한의 적대적 한반도 2개 국가론이나 평화통일 무용론은 대결 구도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 있음. "핵 억제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는 북한의 공언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4. 어떻게 해야 하나: 자강? 동맹? 균형?

- 한국 안보가 직면한 선택지는 그동안 자강, 동맹, 균형의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우선 민족적 감정에서 보면 자강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가 대국과 같이 자체의 힘으로 안보를 지탱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자강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동맹 논리와 자강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동맹 논리는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비용 최대 효과의 장점이 있지만 지금같이 동맹국들의 국

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 이에 반해 균형 논리는 자강과 동맹의 충돌을 잘 관리만하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힘과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20세기 초엽 우리가 당한 망국의 길로 나라를 내몰 수도 있다.

- 무엇보다도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핵을 둘러싼 응수가 격해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대책을 고심해야 함.
- 긴장을 유발시키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압력은 점점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임
-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미일 연계뿐만 아니라 한중일 협력틀을 통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모색하는 것이 절실해 보임.
- 남북의 대결적 자세가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 메커니즘 구축 필요

【토론문】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최 대 석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1. 2024년 안보 환경 개관

- 최악의 남북관계(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오물풍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대남소음공세, 한국의 드론 침투, 대북확성기 방송, 삐라풍선, 8·15통일독트린 등)
- 미중 갈등 및 신냉전 구도 심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유명무실화
- 북러 밀착, 북한군 러시아전쟁 참전
- 중러 파트너십 강화
- 트럼프 당선자의 신고립주의 대외정책
- 계엄 및 탄핵사태로 야기된 국가안보 공백, 대외 신뢰 실추

2. 2025년 안보 관련 핵심 사안

- 남북관계 및 안보 상황관리, 상반기 북한 도발 가능성 대비(NLL)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문제
-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및 북미대화 가능성(중량급 대북특사 지명)
-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가속화, 핵실험 가능성(분단 80년)
- 미중 갈등 심화 및 경제 디리스킹(de-risking)
- 위기의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체제

3. 우리의 외교 안보 태세

- 북한에 대한 상시적이고 상식적인 대응
- 외교적 접근 우선
- 안보 동맹과 경제 의존 사이의 미묘한 균형(가치와 국익의 균형)
- 한중일 삼국협력 강화
-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하이브리드 다자주의)
- 경주 APEC 성공적 개최, 시진핑 방한 추진.

【토론문】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최 윤 희 (前 합참의장)

1. 2024년 국제정세 평가/2025년 한반도 안보 전망

가. 대외적으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담 후 북·중·러 결속 대응 태세를 갖추었으나 미 대선 당선자의 美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으로 국제 정세 혼란

- 신고립주의, 국제경찰 임무 중단, 안보 무임승차 불허 예상
- 경제는 물론 안보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나. 군사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위협 억제를 위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저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

다. 관련하여 중국의 해양 팽창정책에 따른 미·중 갈등 심화로 대만사태 개입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

- 갈등의 본질은 서태평양 통제권확보, 대만사태는 양국의 복심
- 전문가들은 대만사태와 북한 분쟁 상황 동시 발생 예상
- 북·러 밀착과 함께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양상으로 발전
-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사태 시 적극적인 참여 요구
- 중국의 역내 영유권 주장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 필요
-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개입 기피 명분 약화

라. 한편, 미 해군 능력의 한계, 해상수송로 위협의 진화로 미국 주도 국제 해양 질서 와해 위기

- 중국, 미국 대비 230배 조선 능력으로 군함 수에서 미국 추월(2022년 280 vs 370척/ 2030년 435척 예상)

  ※ 미 대통령 당선자(트럼프)의 대한민국 조선소 도움 요청 함의

-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질서에 의존했던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

  ※ 한반도 주변 전 세계 해군 60% 집결, 봉쇄된 형국

- 미국, 후티 반군의 상선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능력 한계, 해상수송로 보호 임무 기피

  ※ 많은 나라가 연합함대(20여 척)를 편성하여 대응 중이나 우리는 청해부대 1척이 대 해적 작전만 참여

- 미국은 쉐일가스 개발, 제조업 국내 유치 후 해상수송로 보호 작전 필요성 대폭 감소(내수시장 80% 소비)

- 무역 국가로 생명선인 해상수송로 위협 독자적 대응 불가피

마. 대내적으로 계엄사태 후 국가 신뢰도 저하, 군심(君心) 동요

2. 대응방안

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요구 등 미국의 요구에 공세적으로 대응

- 중국 견제를 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적극 피력
- 대만사태, 한반도 분쟁 억제를 위한 활동에 적극 개입(해군)
- 급변하는 해양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의 임무와 역할 패러다임 전환(대북, 주변국 위협 동시 대응)

  ※ 세계적으로 해군은 국가이익 보호와 창출을 위해 창설, 미 해군 1775년 창설 후 과도한 운용비로 독립 후 해체, 1794년 해적으로부터 미국 상선대 보호를 위해 재창설

나. 범국민적 상무 정신 고양

-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철저히 준수토록 보장
- 상무 정신 고취를 위한 홍보 및 활동 강화

【토론문】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트럼프 2기 지도자 리스크와 한반도 안보-

남 성 욱 (고려대학교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1. 열병 수준으로 노벨상 집착하는 트럼프

노벨평화상은 공명심이 강한 세계 정치지도자들이 탐을 내는 상이다. 학자나 전문가들이 수상하는 다른 분야와 달리 평화 분야는 정량적·정성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평화를 보장하는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경이로운 외교의 마법사라 칭하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베트남전이 끝나기도 전인 1973년 레득토(Lê Đức Thọ) 월맹 정치국원과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내막이 영국 가디언지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은 파리 평화협정의 주역이었지만 2년 후 월남은 공산화되었다. 당시 두 사람의 공동 수상에 항의해서 노벨상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사퇴하는 등 내부에서도 진통이 심했지만 수상에는 국제정치 힘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노벨평화상의 흑역사는 이뿐이 아니다.

라빈 이스라엘 총리,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대통령 등이 중동 평화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중동의 화약고는 계속 불타고 있다. 최근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정치인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긴 이미 부와 권력을 손에 쥔 그는 명예만 얻으면 3관왕이 되니, 그의 욕망은 이해할 만하다. 기존 4명의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만큼, 트럼프도 5번째로 수상자 명단에 오르고 싶다.

트럼프 당선자는 집권 1기 동안 노벨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9년 아베 일본 총리에게 "나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일본이 보낸 추천서 5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 내가 수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잔뜩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그는 네 번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 못하면서 노벨위원회가 시상 과정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불만을 드러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노벨상 집착증은 열병(infatuation) 단계라고 꼬집었다.

2. 우려 커진 '하노이 노딜' 번복 가능성

최근 들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우크라이나까지 나서서 트럼프의 노벨상을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의 세속적 허영심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당선되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두 달여의 중동 휴전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다. 2025년 노벨상 소재로는 극적인 공감대가 부족하고 전쟁은 진행형이다.

결국 트럼프의 선택은 김정은과의 재회다. 그는 선거 기간 중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화약 연기는 외면한 채 "핵무기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선 이후에는 '선대화 후 협상'을 거론하더니 과거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 주역이었던 알렉스 웡을 국가안보부 보좌관에 임명했다. 또한 북한 담당 특임대사에 주독일 대사를 지낸 리처드 그레넬을 임명했다. 김정은을 관리하려는 고도의 전략일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내년 국제정치의 중요 이슈가 될 것이다. 양측은 서로 협력하여 공동 수상을 하자며 달콤한 러브레터를 보낼 것이다. 폭언과 밀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뉴욕 채널을 통해 평양과 워싱턴을 오갈 것이다.

3. 한국과 미국 모두 '지도자 리스크' 고조

우려는 2019년 하노이 노딜이 번복될 가능성이다. 영변핵을 포기하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민생결의안 11건 중 5건을 해제하는 스몰딜(small deal)에 의한 부분 비핵화가 합의되는

시나리오는 우리에게는 공포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미끼다. 트럼프 주변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시니어'들은 없다. 노벨상을 받아야 하는 트럼프에게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는(CVID)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일 것이다. 트럼프 4년 임기 동안에도 강선의 첨단 우라늄 원심분리기에서는 핵물질이 계속 생산될 것이다.

종신 지도자 김정은은 시간 싸움에서 트럼프를 압도할 것이다. 북핵은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the bottle)' 처럼 한반도를 떠다닐 것이다. 북핵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우리 안보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서울은 비상계엄 소동으로 혼란이다. 한미 양국 모두 지도자 리스크가 문제다.

검은 백조인 블랙스완은 전대미문의 인물이나 사태를 지칭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50년 역사의 미국 정치에 블랙스완의 출현에 버금간다. 이제 미국 정치는 공화·민주당의 정책 대결이 아니라 '트럼프 이전과 이후(Before and after Trump)'로 나뉠 것이다. 그는 당선 이후 전 세계 75개국 지도자들과 통화는 했지만 칠레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직접 면담을 모두 거절했다. 관세 부과 위협에 놀란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직접 찾아와 몸을 낮추고 불법 이민 단속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향후 트럼프 외교의 미래 방향을 점칠 수 있는 장면이다.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관세' 폭탄을 투하한다는 입장이다. 높은 관세 앞에서 백기 투항하지 않을 국가는 없다.

그는 2016년 1기 행정부 당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앵무새 타입의 40~50대 충성파들로 내각을 채웠다. 이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시니어' 그룹들은 그의 주변에 없다. 내년 1월 취임 이후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각국 정상들은 미국이 제시한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들고 오라는 입장이다. 외교적 수사로 일관하는 공짜 정상회담은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유세 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금의 8배를 강조했다. 김정은과의 부분 비핵화 협상으로 노벨상을 받겠다는 야심 찬 꿈도 꾸고 있다. 날아올 청구서는 분명하다.

4.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북한의 개입

하지만 대한민국은 생뚱맞은 비상계엄에 따른 무단 병력이동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조차 흔들렸다. 겨울 초입에 터진 탄핵 충격은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에서 한국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다. K-한류와 방산 등으로 뜨거웠던 국제사회의 주목은 물거품이 되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선장도 없고 나침판도 없는 선원들은 우왕좌왕하는 난파선 신세다. 헌법 73조는 조약 체결 등 외교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규정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려는 국가도 없다. 한국 외교 70년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이웃 일본은 아베 총리의 미망인까지 동원해서 트럼프 공략에 나서고 있다. 서울의 워싱턴 접근은 모든 사태가 정리된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다.

을사(乙巳)년 상반기는 외교안보의 아노미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헌재 결정과 이후 정치일정 등으로 내년 여름 초입이나 되어야 정국이 가닥을 잡을 것이다. 혼란의 장기화는 우리 외교·안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군의 사기는 추락했고 핵심 지휘관들은 계엄 수사를 받아야 한다. 북한은 계엄 사태 7일 만에 윤 대통령이 남한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향후 북한은 물밑에서 남한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분열 심리전 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5. 외교적 자해보다는 국익 수호에 민관이 나서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벌어지는 무책임한 언사와 외교적 자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출처도 불분명한 가짜뉴스를 마구 발설하는 일부 의원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내 정치는 영토 안에서 그쳐야 하듯이 총질은 내부에서 그쳐야 한다.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들의 한계를 기업들이라도 보완해야 한다. 풍전등화의 시점에서 국민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해외교포들도 서울에 대한 불필요한 정파적 관심보다는 거주국 조야에게 한국의 안정적인 정국을 홍보해야 한다.

【토론문】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김 원 수 (前 유엔사무차장)

1. 2024 국제정세 평가

가. 세계적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동시 증대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후퇴로 평화 유지, 기후변화 대처, 인도적 위기 대응 등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적자 확대
- 글로벌 동/서 진영 간 대립과 군비경쟁 재점화
- 동유럽, 코카서스, 중동, 서남아시아, 남/동 중국해, 한반도로 이어지는 세계적 "불안정의 호 (arc of instability)" 활성화
-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징인 유엔,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마비

나.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은 지역을 넘어 한반도와 세계적 안정을 위협

-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로 세계적 및 지역적 불안정 요인의 관리에 어려움 증가
- 트럼프의 귀환으로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의 재균형 압력 증대
- 동북아의 위기 발생 시 미/중의 개입으로 세계적 위기로 전이될 위험성 농후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북아와 세계적 차원의 "블랙 스완"이 될 위험
- 북한의 고립 심화와 러/북 관계의 밀착, 남북 간 대화와 핫라인의 단절
- 북한의 오판이나 오해로 인한 도발 또는 우발적 무력 충돌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위험성
- 분쟁 격화 시 미/중의 개입으로 미/중간 직접 충돌로 비화할 우려

2.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가. 세계, 지역 (동북아), 한반도 3차원의 불안정 요인이 퍼펙트 스톰을 형성할 가능성 증대

나. 퍼펙트 스톰의 맨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탄핵 정국의 불안정성과 트럼프 귀환의 불확실성까지 겹친 삼중고로 백척간두의 형세

다. 현상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북한의 오판 또는 오해에 의한 모험주의 위험성 증대

- 과도기 우리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시험하려 할 우려

3. 우리의 대응 방안

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

-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재점검
- 위험관리를 위한 정부와 국회 간 여/야 초당파 협의체 가동을 통해 우리의 대응태세에 허점이 없음을 과시

나. 한반도 문제의 관리에 필수적인 미/중/일과의 정부 간 및 1.5 트랙의 안보 대화와 핫라인 가동

- 트럼프 신정부와의 안보 협의 강화, 외교 안보 2+2 협의체 조기 가동
- 일본과의 협조를 통해 한/미/일 협의 활성화
- 한반도 위험관리, 북한의 오판 방지 필요성에 대해 중국의 주의 환기

【토론문】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모럴(morale)을 중심으로-

김 명 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모럴의 국제정치

모럴(가치판단+장기적 이익 인식+정신력). moral 〈 morale.

H. 모르겐소는 대한민국의 경우를 적시하며 "어느 만큼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모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1] "평화의 시간이나 전쟁의 시간에 정책을 지지하는 결의"를 뒷받침하는 모럴이 없는 동맹은 유사시 잠재적 전쟁공동체에서 현실적 전쟁공동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음.

모럴은 R. 아롱(Raymond Aron)이 인용했던 G. 피셔(Guido Fisher)의 3가지 국력 요소들 중 심리적 힘과 비슷.[2] 동맹을 뒷받침하는 모럴의 취약성은 적대 진영의 전쟁 모럴 자극. 특히, 민주 국가들 간의 동맹에서는 국민의 모럴과 리더의 모럴이 합치되는 것이 중요.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2기에서는 가치보다 이익 중시? 모럴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기반한 장기 지속(longue durée)적 국가이익 추구.

이스라엘-미국 동맹: 조약이 없지만 모럴이 강한 비공식적 동맹. 현재의 한미동맹은 공식적으로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 stronger?

---

1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rev. by Kenneth W. Thompson.

2 Raymond Aron, *Paix et guerre entre les nations*.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아직 조약이 없었음에도 미국 신속 참전. 당시 한반도는 일본 주둔 SCAP(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連合國軍最高司令部) 사령관의 관할 지역. 따라서 D. 맥아더 사령관의 최초 파병은 직무적 경찰 행동(police action). 그러나 미국 H. 트루먼 대통령의 공식적 참전 결정 과정에서는 모럴이 중요. 미일전쟁 시기 비공식적 한미동맹(1941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재미한국인의 전투 참가 〉 광복군의 전투 참가 〉 일소중립조약 이후 소련군 휘하 공산주의자들은 대일전 기피.

2. 2024년 국제정세와 새로운 모럴

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서유라시아

탈냉전시대(Post-Cold War Era)의 종언 =〉국지적 열전과 세계적 신냉전(신형 대국 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한반도 6·25전쟁 시기 육상 군사분계선(MDL) 획정에 적용되었던 교전선에 따른 공간 재획정(uti possidetis) 원리에 따라 정지, 고착될 가능성 증대.

상승하는 유라시아주의 모럴: 푸틴과 두긴의 유라시아주의. 우크라이나 수도 기습 점령에는 실패했지만, 크림반도, 돈바스, 러시아를 연결하는 공간 및 친러주민 확보.

vs. 대서양-유럽 동맹 모럴: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1812년 나폴레옹전쟁 종전 이후 지속된 스웨덴 중립 정책의 폐기). 폴란드, 독일, 프랑스 등의 군비 증강. K-무기 수출에 만족?

나. 시리아 아사드 정권 종식과 서남유라시아

1970년 이후 54년간 지속된 부자 세습 독재 정권(평양 정권과 유사).

아랍바트사회당의 반식민주의, 제3세계. 북한은 제4세계를 거쳐 제5세계로.

아사드정권 붕괴는 Global South의 민주적 모럴 촉진. 쿠르드, 위그르 분리?

cf. 1975 리마의 눈물 vs. 2024 리마 APEC정상회의

페르시아-아랍주의 모럴 vs. 이스라엘주의 모럴: 힘과 동맹에 기반한 이스라엘 주도의 새로운 정전모델(modus vivendi) 창출. 시리아 분열 가능성에 대비한 이스라엘의 고지 장악.

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MAGA의 모럴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과의 모럴 대결에서 신승. 과거 커버넌트(covenant) 모럴 + E. 머스크, P. 틸로 상징되는 미래 모럴.

3. 2025 한반도: 유포리아의 종언과 새로운 안보 모럴

- 냉전 승리주의 모럴의 종언. 1988 서울하계올림픽=>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분단=>남남분열.
- D. 트럼프, 김정은, V. 푸틴, 시진핑의 그레이트 게임? 타이완 위기?
- 대한민국: 경제발전 이후 동맹 모럴 약화의 역설[3] + 안미경중의 딜레마.
-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했던 한미동맹(〉 일미동맹)의 약한 고리는 한일관계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과 반일민족주의 플랫폼의 양기(Aufheben)?

3 Myongsob Kim, Suzanne L. Parker and Jun Young Choi, "Increasing Distrust of the USA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Revue internationale de science politique*. Vol. 27, No. 4 (Oct., 2006), pp. 427-45.

【토론문】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금 철 영 (KBS 기자)

1. '불확실성'의 증가

- 전 세계 4개 지역에서 '두 개의 전쟁'(중동과 우크라이나)과 '두 개의 내전'(미얀마와 수단)
- 대규모 인도적 재앙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 국제사회 무능력과 한계 노출
- 냉정한 국익 추구와 패권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배
-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 '선거의 해'. 그럼에도 '민주주의 성장'에 의문
- 미국 주도의 다자동맹(NATO)·협의체(AUKUS, 쿼드) 시험대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적극 추진 표명.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

2. 우크라이나 이펙트

- 남북한 모두 러-우 전쟁에 직·간접 개입
- 남북 관계 단절 속 한-러 관계의 긴장과 북-러의 밀착
- 북한 병력·무기의 전선 등장과 심리적 파급효과
- EU 27개 나라 북한 파병 규탄 성명
- 유럽연합, '국제전으로 확산' 가능성에 우려
- 우크라이나의 '드론 반격' 현대전에 중요한 시사점.
- 그럼에도 전쟁은 중대한 변곡점 지나

- 젤렌스키, “크림과 돈바스 되찾을 힘 없어...안전 보장 중요”

3. ‘인도·태평양 전략’ 지속 여부 주목

- 미-중 패권 경쟁 속 ‘인태 지역 역동성’도 도전 직면
- 일본의 제안에 미국이 수용· 발전시킨 ‘인도-태평양’의 미래 불확실
- 권역별 다자협력의 다층적 블록화 지속 강화 여부 주목
  (AUKUS, 쿼드, 한미일 군사협력, 한일호 ‘인태대화’ 등)

4.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 급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접촉 및 협상 모색 가능성
- 이시바 일본 총리의 대북 접촉 및 협상 시작 가능성
-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리뷰와 방위비 재협상 이슈 부각 등에 대비
- 미·중간 무역 분쟁뿐 아니라 군사 분야 대결도 심화될 가능성
- 러-우 전쟁 종전 협상 추진과 전후 한-러 관계 재설정 문제 부각

5. 2024 국제정세와 2025 한반도 안보 시사점

- ‘이상’과 ‘가치’ 아닌 ‘국익 우선’의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 심화
- 중동과 유럽, 2개의 전쟁이 보여준 ‘방공망 시스템’ 분석과 응용
- 드론전 등 현대전 양상에 대한 정밀 분석과 대응
- 다자군사협력 또는 동맹도 자국의 방위력이 강할 때 견고하게 유지
- 외교와 안보는 쌍두마차. 때로는 외교가 안보를 견인
- 한반도 외교 안보 상황 긴박하게 전개될 가능성 대비
- 북핵과 러시아의 우크라 핵 위협 등 NPT체제 균열 심화에 능동 대비
- 우발적 충돌 방지 등 위한 남북 관계 및‘ 핫라인 복원’ 필요성

【토론문】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김 귀 근 (前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

1. 2024년 국제정세 평가

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파병

- 북한군 참전으로 국제전 성격 비화.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 파병 저지 의도로 '세계대전 비화' 가능성 경고하고 있음.
-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와 한반도에 신냉전 고착화를 꾀해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 파병.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또는 전투기(미그, 수호이기)와 방공무기 등의 북한 유입으로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
- 러시아는 핵 의존도를 높였고, 새로운 핵시스템 개발, 단·중거리 이중타격 능력 강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소원으로 한반도 영향력 축소.
- 종전 방식에 따라 유럽 안보에 영향 초래.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주변국 군사력 강화로 K-방산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나. 중동전쟁 및 중동정세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정세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은 북한보다 중동에 우선순위. 북한 비핵화 정책이 밀리고 한국의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영향 초래.

다. 트럼프 귀환

- 방위비 분담, 북미 관계, 무역 분야 압박 등 한반도 정책 영향 우려

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남북 단절 조치

-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군사분계선 인근 방벽 설치 등 단절 조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및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

2. 2025년 한반도 안보 전망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책 주목

대선 캐치프레이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거래중심적 동맹관계'로 변화.

- 2025년 말 종료되는 현 방위비분담금의 재협상 또는 한국의 더 많은 비용분담 요구할 가능성.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나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 가능성.

북미 관계 정상화 시도

- 정상외교를 위한 실무선 또는 비선 접촉 가능성(한미 균열 노리고 북한이 비선 접촉에 적극적일 가능성도 대비해야)
- 대북제재 일부 완화 제시 가능성. 북한 '핵보유국 지위' 묵시적 인정 우려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정책 약화 우려

- 워싱턴선언에 따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정책에 변화 가능성.
-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개념 포함 연합작전계획 발전 공감대.
- 미국의 대중 압박에 한국 적극적 동참 압박 가능성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및 첨단무기 개발로 독자적 방위역량 구축 과제.
- 한미일 미사일정보 공유와 관련해 PAC-3, L-SAM 등 타격자산 정보까지 공유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3. 러시아-우크라전 종전 방식 주시

- 미국의 적극적 중재 또는 압박으로 조기 종전 시 북한군 철수 방식 주목할 필요. 철군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와 '딜' 가능성 주시할 필요.

【토론문】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 방향성과 환경-

신 석 호 (동아닷컴 전무이사)

1. 개요

본 토론문은 2024년 12월 17일 현재까지 움직임이 감지된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우선순위 등을 전망, 1기와의 변화와 지속성 측면을 검토한 뒤, 2기가 직면한 환경 변화를 살펴보는 것임.

2. 트럼프 대북정책의 변화와 연속성, 잠정적인 판단

가. 연속성의 측면

- 국내외 언론들에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 방향성은 변화보다는 지속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임. 최고지도자 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면서 1대1 직접 대화로 비핵화를 모색한다는 것이 골자임.

※ 로이터 통신은 11월 26일 복수의 트럼프 측근들을 인용하여 “정권 인수팀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1]. 트럼프 대통령도 12월 13일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을 안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라며 “생각해 보면 나는 그가 상대해 본 유일한 사람”이라며 김

1 동아일보, 11월 28일자.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2]

이상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대북 대화 국면의 정책 접근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임. 1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이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되며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였음.

〈표 1〉 트럼프 1기 대북정책 중 대화 국면 (2018년 1월~2019년 12월)의 내용과 평가

번호	특 징	내 용	비판적 평가
1	북한 독재자와의 '탑다운' 방식 직접 대화	김정은과 3차례 정상회담, 최고지도자 간의 서신 왕래 등	국가이익 걸린 정치 이슈를 사인 간 경제 협상처럼 다룸
2	군사훈련을 협상 칩으로 활용	대화 기간 중 한미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	평화 시에도 훈련은 계속하라는 전쟁원칙 위배
3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대북제재 완화와 '평양 트럼프 타워' 제안 등	정치와 국가안보가 경제에 우선한다는 원칙 위배
4	김정은의 '비핵화' 말과 의지 과신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진의 파악 못함	상대방의 말보다 행동, 의도보다 능력을 보라는 원칙 무시

나. 변화의 측면

- 일부 보도는 연속성보다는 변화의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한국의 국가이익을 벗어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양보를 할 가능성을 제기. 트럼프 당선인이 2019년 2월 김정은과의 하노이 담판에서 '노딜(no deal)'을 선택한 것에서 정책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의미임.

※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12월 16일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출범 이후 북한과 비밀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에 이르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3]

다. 잠정적인 판단

-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1기 스타일의 대북 대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압박정

2 뉴시스, 12월 13일자.
3 뉴시스, 12월 17일자.

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동 문제 등 다른 외교정책 사안보다는 중요성과 시급성 면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큼.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핵미사일 제거를 대가로 한 중·단거리 핵미사일 인정 등의 옵션은 대중 봉쇄에 중요한 한미, 한일 동맹을 위협하는 동시에 핵비확산(NPT) 체제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현실적이 아님.

3. 트럼프 행정부 2기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

- 제4회 나지포럼에서 지적한 대로 2025년 1월 출범할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북한 역시 2017년과는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음. 따라서 7년 전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적은 상태임.

〈표 2〉 2024년 12월 현재 미북 대화의 달라진 환경과 인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김정은의 북한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우선 관리 필요성. - 러시아 및 중국이 과거처럼 대북제재 등에 협조하지 않음.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학습효과. - 강대국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밀착한 북한. 악화된 남북관계.	- 러시아와의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한 핵미사일 추가 고도화 가능성. 북-중-러 3각 협력에 대한 기대. -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얻은 학습효과. 미국과 협상으로 '핵을 가진 평화'를 용인받을 수 없다. - 미국과 협상에 대한민국 정부의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한 회의(문재인 정부 학습효과).

- 이런 환경의 변화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참여하는 외교·안보 참모들의 역할도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

※더 디플로맷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등은 과거 대북 강경론자로 동맹국 한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제 비핵화 레짐을 깨면서까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인지 회의적임. 〈이상〉

【토론문】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중심으로-

배 수 강 (신동아 편집장)

2025년 한반도 안보 전망에서 핵심은 2025년 1월 등장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이며,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중상주의적 거래, 힘을 통한 평화, 중국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주권, 안보, 경제적 이익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대외 선언이자, 미국 외교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다. 세계는 모든 가들이 상호의존하며 상생하는 '글로벌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하는 '대결의 장'이며, 따라서 트럼프 2기 정부는 전통적 동맹이나 다자 협정보다는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국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는 장기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나 국제적인 협력보다는 단기적 국가 이익에 초점을 둬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의 방향 전환을 뜻한다.

둘째, 중상주의적 거래는 손해가 되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맹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인권 문제 같은 추상적인 관념은 배제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은 손해를 보고 다른 나라는 이익을 보는 불균형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GDP 2%에 못 미치는 국방비나 불만족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등을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한국과 일본, NATO 회원국 같은 미국의 동맹들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다자간 협정보다는 우월한 군사적,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1:1 협상을 선호한다.

셋째, '힘을 통한 평화'다.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2024년 8,600억 달러를 넘어 '1조 달러'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국방비 대폭 확대는 미군의 역량을 높이고, 방위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핵전력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면서도 분쟁에 개입, 혹은 확대하기보다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억제력의 수단, 혹은 협상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실용적인 계산이 반영돼 있다. 물론 미국이 상대하는 최우선 적대국은 중국이고, 군사력과 함께 경제 문제를 들고나와 중국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대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되며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여전하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에서 선박의 보수·수리·정비 분야(MRO)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비록 주한미군 감축 등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AI, 5G, 양자 역학, 퀀텀 컴퓨팅) 등에서의 미국과 군사적 협력은 상호 '윈윈' 전략인 셈이다. 이런 기회와 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핵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냈고, 동시에 미국이 제공해 온 확장억제 신뢰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 한국으로서는 동맹 안보를 비용 관점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핵 보장이 지속될지가 한반도 안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 미 전략자산 전개, 핵 기반 시나리오를 반영한 연합훈련 등이 필수적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B-1B 폭격기나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에 대해 '요금'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동맹 틀 속에서 '공짜'로 여겨졌던 핵 보장에 대한 시각은 벗어나야 한다.

북한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한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전략적 가치도 높인 만큼 미북 협상에도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적 성향을 감안하면 북한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 동결과 우크라이나 철수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내밀 수도 있다. 모든 협상의 전제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다.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이익은 같은 것이며, 한미 양국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설득과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의 핵보장이 강화돼야 하며, 국제 조약이나 국제법, 동맹을 뛰어넘은 핵무기 '자강'의 요구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역시 미국의 지지와 후원이 필요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과도 맞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반대와 반발, 국내 정치적 논란도 피할 수 없지만 생존을 위한 분석과 논쟁은 계속돼야 한다.

【다자토론】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사회 :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론 : 장달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
김귀근 前 연합뉴스 기자
신석호 동아닷컴 전무이사
금철영 KBS 기자
배수강 신동아 편집장

▣ **백승주 회장**: 편안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올해 연말에는 마음속이 모두 복잡하고 착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배님들, 동료분들도 모시고 올해 정세를 한번 평가하고 내년 정세 전망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전 국방부 부차관보였는데, 거부 전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온갖 곳에 다 참견할 수 없고, 거부할 것과 참가할 것을 골라서 해야 하겠다.' 그 말의 칼이 대한민국이 위험할 때 참견하고 협조하고 개입하는데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토론) 순서를 이렇게 정하기가 좀 혼란스러울까 싶어서 여기 책 목차대로 순서를 따라가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제를 장달중 교수님께 일단 넘기겠습니다.

▣ **장달중 교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쟁기념사업회에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반도 안보의 글로벌 컨텍스트(Global Context)가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정학적 환경(geopolitical landscape)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또 국내외 전쟁에 대한 이란, 중국이 합쳐진 연합 체제가 글로벌 분열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갈등 국면 속에서 미국 주도적 세계 질서가 이제 미중 경쟁 구도의 세계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증명할 글로벌 안보 컨텍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트랙이 한국의 안보 지형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트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동안 양자 중심의 동맹 관계를 추구해 왔는데, 최근에는 말하자면 (양자 간의 동맹뿐만 아니라) 동맹국 상호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한국은 앞으로 이 책임뿐만 아니라 의무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가해지는 압력은 중국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선택하라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그동안에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토론과 지혜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제 한반도 안보의 한반도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한반도 안보는 사실은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반도 문제는 '국제화' 하지 말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성행해 왔지만, 결코 한반도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더군다나 2025년도에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피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한반도 쪽으로 끌고 오는 역량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2025년에 우리 안보 정책이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략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승주 회장**: 너무 시간을 짧게 드렸는데, 좀 더 시간을 드리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대석 교수**: 저는 올해 남북 관계가 최악이라고 봅니다. 남북한 그동안 연결했던 도로가 다 폭파가 됐죠. 대남 소음 공격 요것도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드론

을 또 평양에 침투시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출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도 지속이 됐고 또 신냉전 규제 심화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의 UN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과 중러 파트너쉽, 이것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우리 안보 핵심 관련 사안은 남북 관계의 안보 상황 관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전반에 저는 북한 도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또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아주 다른 어떤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이런 쪽도 저는 최대한 많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든가 무슨 뭐 특별하게 반응하고 하기보다는 상시적이고 상식적인 대응을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 문제 철수 및 감축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과 특히 나 북미 대화, 우리를 제외하는 가운데 다음 대화 가능성도 저희는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험을 완화해 나가는 조치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승주 회장**: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분석에 온갖 걸 다 담아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목차 순으로 최윤희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윤희 총재**: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구체화하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경제나 다른 정책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만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미국이 안보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의 패권화를 막는 견제하는 가장 큰 핵심 요인은 대만 사태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우선 해군력 측면에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해군을 개발하면서 2020년대를 기점으로 이미 중국이 미 해군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대만 사태에 관해서는 우리는 당면한 북한의 위협이 너무도 위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입을 안 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아놓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

만 사태하고 한반도 문제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파병하면서 러시아를 돕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대만 사태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만 선택이라는, 그 중심인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우리 해군력으로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만 사태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해상 수송로 측면에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이런 국제 해양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후티 반군이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이제는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의 작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기에 미 해군이 이걸 전담해서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함정 한 척을 기획하고 나오는 데까지 최소한 10년에서 20년, 30년이 걸려요. 지금 시작해도 늦다는 얘기입니다.

▣ **백승주 회장**: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원수 전 UN 사무차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수 사무차장**: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안보 형세가 세계 다른 방향에서 퍼펙트 스톰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난파선 즉, 풍전등화의 신세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지만 또 저희가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또 잘 극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잘해 나갈 수 있다 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을 하고 싶고요. 그러려면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최선에서 최악까지의 가능성을 다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이 후퇴하면서 생긴 팀의 경쟁 때문에 세계적인 동서 양 진영의 폴트 라인(fault line)에 서 있는 지정학 단층대가 활성화되고 단층 내에 서쪽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한테 옮겨붙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옮겨 붙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난파선 안에

서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더 이제 난파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정파적인 입장 차이를 떠나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최우선으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중국 일본 간의 외교 관리 체계를 구축 그리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지를 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벌어져도 그걸 관리하려면 핫라인이 열려 있어야 그 사고가 진짜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냐 일으켰어도 그걸 좀 데미지를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면 관리가 가능해지는데 그걸 안 하면 원하지 않은 분쟁이 격화되기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핫라인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메시지를 보낼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회장**: 예, 차장님 감사합니다. 최윤희 의장님하고 다 공통으로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전쟁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잠시 뒤에 조금씩 같이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 **남성욱 교수**: 11월 21일, 제5회 나지 포럼을 발표할 때만 해도 뭔가 해볼 수 있구나 그리고 뭔가 워싱턴의 이 블랙스완 같은 지도자를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잘 상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며 발제했습니다. 그런데 45일 만에 대한민국이 블랙스완이 되었습니다. 참, 필설로 다 알 수 없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정쟁이 국경에서 끝나야 한다는 표현이 현실화할 수가 없고, 국경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과 평양의 대화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235년 역사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을 찾아봤더니 네 분이시더라고요. 루즈벨트, 그 다음에 윌슨이 그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뭐 지금 네 번이나 후보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까 생각합니다만, 지금 동시다발의 전쟁으로 트럼프가 추천서를 받을 만한 종전·휴전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평양과의 협상입니다.

그러면 미북 간의 대화를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부분 비핵화로 갈 텐데 이제 한국의 대응책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백승주 회장님이 콜비 얘기를 했고 왈츠 NSC 보좌관 그다음에 또 알렉스 웡 보좌관, 그레넬 주독 대사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죠. 1953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에 질적이고 양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백승주 회장**: 남성욱 교수님은 어려움 해소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하셨고 우리 김명섭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명섭 교수**: 여기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 계시고 또 군사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보다는 역사 정치학을 전공하고 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연세대학교에 지정학 과목을 개설했던 입장에서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2024년과 2025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지정학과 새로운 지정학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동선은 과거의 지정학이 지리에 의해서 강조했다면 새로운 지정학에서는 인간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비판, 지성 이런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는 모랄(morale)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랄은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포함하면서도 어떠한 정신력 그 다음에 심리적인 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랄이 얼마나 동맹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처럼 국제법적인 조약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성립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모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움직이는 힘이고 또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고 리더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민주 국가에서는 이 대중을 움직이는 모랄과 리더를 움직이는 모랄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참전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 하는 걸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당시 국제법으로는 이 한반도하고 일본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합군 사령부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연합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의 직무 관할 영역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즉각적인 경찰 행동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참전을 하게 된 것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모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첨언하면 지금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저는 이 전쟁이 날 때부터 이것은 결국 코리아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89년 냉전 끝나고 91년 소련 해체되고 나서 약 30년 간의 유포리아 그다음에 미국의 네오콘들에 의해서 유럽의 살롱 문화라고 비아냥 받았던 그러한 지금 유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독일이 이렇게까지 폭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관성이 지금 독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54년간 지금 지속이 됐어요. 이 정당이 아랍 바트 사회당입니다. 이 아랍 바트 사회당이 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제3세계를 단결시키는 것인데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회당이 몰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 중동뿐만 아니라 제3세계주의 흔히 얘기하는 비동맹운동,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트럼프의 모랄과 우리의 모랄을 얼마나 합치시켜 나갈 수 있느냐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거래를 통해서 한미 동맹을 끌고 나가는 것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주 회장**: 감사합니다. 다음엔 KBS의 금철영 기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 **금철영 기자**: 먼저 이렇게 국내적으로 전국이 혼란한 시기에 그 외교 안보의 지형을 또 우리나라의 내년도 안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승주 회장님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제 문제 분야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남북한이 직간접적으로 다 개입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그래서 어렵사리 취재를 계획해서 보름간의 취재를 마치고 그제 귀국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국내적으로는 현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압박에 직면해 있고 본인들도 내세웠던 승리에서는 멀어지고 패배에 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크림과 돈바스를 찾을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현실 인식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종전에 대한 압박이 커지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유럽연합에서도 여러 가지 성명과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북한의 파병을 규탄한다." 이런 성명이 있었고, 그리고 유럽연합도 이 전쟁이 북한의 참전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 했습니다. 토론 시간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더 일본의 전략적인 가치가 미국의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도 굉장히 위기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겠지만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래버리지 또 한미일 협력에서도 또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좀 위기가 고조되기 전에 좀 능동적으로 좀 관리하고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니셔티브를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주 회장**: 기자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젤렌스키가 현실을 인식하고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못 찾는다 인식하고 있다면 대단히 큰 뉴스 같습니다. 김귀근 기자님 아마 북한 정부 연합뉴스 최고의 북한 전문 대기자이시고 그래서 오늘 북한 전문 대기자 자격으로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 **김귀근 기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 앞에서 제 견해를 발표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백승주 회장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를 다루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기자인 입장에서 올해의 국제 정세는 한마디로 유럽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을 국내외적으로 강하게 주었던 그런 한 해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이 참전하면서 국제전 양상으로 되는 그런 현 단계 같은데 더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5분의 1을 지금 러시아가 먹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종전이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완전 영토 회복이라든지 희망했던 것이 전부 위기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이 굉장히 증폭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또 중동 정세 악화가 어떤 그런 북한의 비핵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미국의 정책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해서 이번 SCM 공동 성명에서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또 우리 남북 관계로 봤을 때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단절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가 반성해 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셀 것 같은데,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또 내년에 한일 관계 60주년, 한일 수교 60주년인데 또 한일 관계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계속 갈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외교의 도전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승주 회장**: 이어서 신석호 박사님입니다. 동아일보 계실 때는 안보 분야 전문가에 북한학 박사로서 많은 취재를 하셨는데 지금은 동아닷컴 전무이사라서 나지 포럼에 자주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석호 전무이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학교 선배님들 모시고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토론문은 저널리스트 하게 썼는데 쭉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논문 스트럭처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제를 좁혀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한 간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검토

해 봤는데요. 이제 2기 행정부의 대북 대화가 이렇게 가도 빠르게 진행이 돼서 성공한다든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걸 관철하는 데 있어서 이런 틀은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에는 이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하나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 능력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대화라는 정책의 목표와 초기 조건과 능력 세 가지를 가지고 쭉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보도 두 개 제가 인용했는데 1기 때 대북 대화의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였는데 최근에 그 목표를 바꿀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비핵화를 포기할 수 있다, 핵 보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변화하는지 아니면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지 그걸 우리가 잘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 능력에 있어서는 1기의 트럼프의 대북 대화는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고 그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저는 현실주의 정치학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비판적으로 검토해 왔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2기의 정책 능력이 그것보다 달리 더 강화되었다고 볼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런 증거는 없다고 보고 다만 초기 조건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많이 변화했고 지금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가 뛰어들고 북한의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변수들은 1기의 초입에는 맞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대북 대화 정책의 초기 조건도 옛날보다 복잡해졌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트럼프 대북 대화 정책의 목표가 변화하는지 그리고 초기 접근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그 능력에 있어서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 변화들이 2기 행정부에 있는지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 **백승주 회장**: 예, 신석호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아 현재 편집장님 말씀해 주세요.

▣ **배수강 편집장**: 저는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 관련되어서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중상주의적 거래 그다음에 힘을 통한 평

화 중국 등으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우선주의는 어쨌든 세계가 이제 글로벌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런 분위기로 바꾸려 된 것 같고요. 이제는 단기적인 국가 이익에 초점을 둔 그리고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이 어떤 방향 전환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건데 중상주의적 거래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전에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들 이제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불균형 구조를 갖다가 바꾸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다들 말씀하신 부담금이나 무역 적자 이런 부분에서도 예외 없이 이제 한국이든 일본이든 나토든 이제 협상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느낌으로 전개될 걸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가 올해가 한 4,600억 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1조 시대가 개막될 예정이고 또 이러한 미국은 이러한 방위산업 인프라라든가, 군사력 증가를 통해서 동시에 경제적 압박 수단 또는 억제력 수단으로 보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중국이란 주요 공격 표적을 예상하면 미국의 이 포괄적 전략동맹, 한미 동맹도 중요성도 여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전쟁과 관련하여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동맹 안보가 비용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게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요.

끝으로 북한 김정은이 관련 문제가 아니고 일단 대북 제재 완화하는 데서 우리가 트럼프 당선인이 그전에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칫 이제 우리가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를 넘어서 이건 핵 동결로 갈 경우,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참전하면서 대외적인 협상은 몸값을 올려놨는데 이러한 것을 적극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그 뭐 핵 관련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가 그동안 동맹국의 문제 등등 해서 자꾸 차고 뒤편에 좀 물어놓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생존을 위한 분석과 논쟁을 할 때가 됐다. 저는 우리의 자체적인 어떤 자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슬기롭게 토론하고 또 그걸 알리다 보면 대한민국의 2025년 한반도 안보도 저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백승주 회장**: 예, 배수강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나라를 지키는 포럼을 줄여서 나지 포럼이라는 이름을 넣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아마 분기에 1회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달중 교수님께 마무리하시는 말씀 좀 드리고 우리가 이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달중 교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콘돌리자 라이스가 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최근에 아티클에서 요한계시록의 녹취록에 나오는 그런 네 가지의 말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흰색의 말, 두 번째는 적색 말, 전쟁의 말이죠. 세 번째의 말은 흑색의 말 기근을 받은 말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청색 말인데 이 말은 전염병을 가져가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네 마리가 미국으로 간다는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로벌한 컨텍스트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 정책적으로도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럽이 지금 살아가려면 토론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토론과 대화의 장이 정말 필요한데 지금 이 정도로 구체적인 거 지금 한국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와 토론의 장을 이런 되도록 자꾸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백승주 회장**: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자주 이렇게 지식인들이 모여서 준비한 것을 모아 주소지 찾아서 또 논의한 것도 보내주고 그렇게 다시 포럼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KWO 나지포럼
2024 국제정세 상황평가와 2025 한반도 안보 전망

발 행 인 백승주
발 행 일 2024년 12월 27일
발 행 처 전쟁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 02. 709. 3046
편집위원장 서진아
편 집 위 원 김유석, 김홍희, 김수빈
제 작 도서출판 온샘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전쟁기념관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